

# 기망에 의한 대여금 채권도 상계 항변 가능



김지혁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상계(相計)란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각 대응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채무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93조 제2항). 이처럼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에서는 상계가 가능한 요건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92조, 제496조 내지 498조).

민법 제496조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광계로 상대방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받을 돈과 상계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한편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구성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해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해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익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해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해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

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다만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금전을 대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해 발생하는 권리다.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해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 초1 난독 전수조사, 한글 선행 부추긴다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검사를 받는다.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 계획'을 1호로 결재하면서다.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 교육감이 '1호 결재'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난독증이나 난산증, 경계성 기능장애 등이 곧 학습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교육청은 검사를 통해 난독, 경계성 기능장애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심층 진단해 맞춤 지원한다는 게

획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계획된 '난독' 전수 조사가 첫째 초1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난독이란 지능지수는 정상 범주에 속하고 듣고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는 데 이상이 있는 증세를 말한다. 보통 글자나 단어를 뒤집어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증세도 그중 하나다.

동갑이라도 1월생과 12월생이 성장의 격차를 보이는 나이는 대략 7~8세까지다. 이 때문에 같은 1학년이라도 1월생보다 12월생이 더딘 경우가 왕왕 있다. 내년 초1 대상 난독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부담감을 '한글 선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한글 책임교육' 정책

과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초1·2의 한글교육 시간을 종전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다'는 전제로 초1을 교육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한글 책임교육'을 믿고 한글이 무지한 상태로 초1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따라 당해 '난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한글을 미리 배우고 입학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부모 65%가 '공교육 전반에서의 책임교육 실현'을 꼽았다. '한글 해독 진단'으로도 충분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난독' 진단을 시행해 학부모로 하여금 '한글 선행'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lhj@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4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 60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7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어불성설. 84년생 오후에 인연을 만나 즐겁다.
- 소** 37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49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61년생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바른길 아닐. 73년생 음주는 지각하고 몸이 괴로울 터이니 자제를. 85년생 깨끗하고 상쾌하게 옷차림을 바꾸어라.
- 호랑이** 38년생 투자에는 반드시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있어야. 50년생 물 건너서 기본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62년생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자신의 문제이다. 74년생 이 세상에 결코 우연한 행운은 없다. 86년생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 토끼** 3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다. 5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현실. 6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87년생 가족을 필요 없는 하루.
- 말** 40년생 자식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는다. 52년생 진실을 알아도 침묵해야 편하다. 6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그만이니 약담 마라. 76년생 사사치절 맑은 날만 되풀이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88년생 나에게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
- 뱀** 41년생 죽을 만큼 힘들어도 솟아날 방법은 있다. 53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일을 해나기만 된다. 6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7년생 허릿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대 낭패. 89년생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자.
- 말** 42년생 외출 시에 자동차를 조심해야 한다. 5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78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니 협조하자. 90년생 잠시 피해야 할 일 발생한다.
- 양** 43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들 건 그리움이다. 55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7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조심히. 79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91년생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 원숭이** 44년생 오후에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56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68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이 좋을 듯. 8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도전해 보자. 92년생 가끔씩 상대를 이해하기 바란다.
- 닭** 45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57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 81년생 내일은 내일 오늘 사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대비. 93년생 우울 안 깊이는 알 수 없다.
- 개** 4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날은 의미 없는 날. 5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7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82년생 바람직한 만남이 아니라면 감정의 달콤함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94년생 직장 출근을 시작.
- 돼지** 47년생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59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준비가 필요. 71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3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다. 95년생 지인으로부터 투자는 배신당할 수.

# 김상회의 四季 절기처럼 나이 들기

정신을 못차리던 여름이 지나고 찬 서리가 내린다는 한로(寒露)를 지냈다. 풍성한 추석이 지나면 올 한해도 막바지를 향해 간다는 생각에 벌써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야마 사람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도 한몫하는 것이 아닐까. 고희화 추세에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집 저 집 부모님들이 구십을 넘겨 장수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인지는 의문이다. 반드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저 하루하루 TV를 끼고 살며 심심하지 않게 지내려 애를 쓰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는 걸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수를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가 고희화 사회가 심화하면서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공자가 그리도 장유유서를 삼강오륜의 하나로 집어넣은 이유는 늙음을 약점으로 보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도 노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혜'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는 곧 절기의 순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를 잘 알며 순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는다는 순리를 안다는 것이며 순리를 안다면 지혜는 당연히 함께한다. 추분이 지나면 밤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 동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24절기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뉘듯 저녁 8시가 넘으면 슬슬 하루를 마감하는 준비를 한다. 그렇듯 인생 노년은 살아온 날을 반조하며 어느 날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 하더라도 여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것이 절기처럼 나이 먹는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8	9	1	6	
9	7		6	2	5
		5			9
	9	6	7	8	
5			3		
	8	6	3	9	7
1	2	9	5	6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 과일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 할인도서

9	8	9	6	2	7	1	8
2	7	8	9	1	9	6	2
2	1	6	9	7	8	9	8
7	2	1	6	8	2	9	9
9	8	2	7	9	6	7	1
6	2	9	7	1	9	8	2
1	9	2	9	8	7	2	6
8	6	7	2	8	2	1	9
8	9	2	1	9	6	8	2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